

학종 인기 학과는 ‘사회심리학-생명과학-빅데이터’

나만의 길, 대입서 기회로 작용
콘텐츠·미디어 분야 경쟁률 ↑
경쟁률로 합격·불합격 판단 일러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수험생이 고교 3년간 어떤 경험과 노력을 해왔는지를 바탕으로 학생을 정성평가해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들의 평소 관심사와 선호도가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학종 전형 경쟁률과 인기는 대체로 비례한다는 공식이 가능하다.

11일 진학사가 2020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모집단위 경쟁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경희대 생물학과,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서강대 사회학/정치외교학/심리학과 등이 해당 대학 학종 전형 중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숙명여대 숙명인재II 전형의 사회심리학과로 무려 56.6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서강대 심

〈2020학년도 서울 대학별 학종전형 경쟁률 1위 모집 현황〉

대학	전형	모집단위	경쟁률
건국대	KU자기추천	문화콘텐츠 학과	44.08:1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생물학과	31.2:1
고려대	일반전형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8.95:1
동국대	Do Dream	사회복지학과	46.67:1
서강대	학업형	사회·정치외교·심리학	27.1:1
서울대	일반전형	사회학과	13:1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생명-빅데이터분석학	49:1
성균관대	학과모집	생명과학	24.17:1
숙명여대	숙명인재	사회심리학과	56.67:1
연세대	활동우수형	컴퓨터학과	21.33:1
이화여대	미래인재	의예과	15.07:1
중앙대	다빈치형	생명과학과	44.38:1
한국외대	학생부종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5.89:1
한양대	학생부종합	생명공학과	37:1
홍익대	학생부종합	역사교육과	20.5:1

/자료=진학사·각 대학



리학과 등 ‘심리’ 키워드의 모집단위의 경쟁률은 평균 18.2대 1로 15개 대학 전체 인문, 자연계 모집단위 평균 11.2대 1의 경쟁률보다 매우 높다. 심리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준다.

서울시립대 생명과학-빅데이터분석학은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

은 경쟁률은 생명과학과 관련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도 있으나, 전년도(2019학년도) 해당 모집단위 합격자 교과성적이 4.15대 1로 타 모집단위에 비해 상당히 낮았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이 발표한 전년도 입시결과만 참고해 그 성적이 낮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동국대 두드림(Do Dream)전형의 사회복지학과는 46.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사회복지학과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경쟁률 19.46대 1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2018학년도까지 불교사회복지학과로 모집하다가 2019학년도부터 사회복지학과로 소속단과대학과 명칭을 변경해 모집하고 있다. 신규 모집단위나 모집단위명을 바꾸는 경우에도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전형의 생명과학과도 8명 모집에 355명이 몰려 44.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학

과는 2018학년도 60대 1, 2019학년도 52대 1 등의 높은 경쟁률을 이어오고 있다. 이 학과는 다빈치형인재전형 뿐 아니라 탐구형인재전형 경쟁률도 38.67대 1을 보였다.

건국대 학종 중에서는 KU자기추천 전형의 문화콘텐츠학과가 44.0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또 이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도 43.0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42.75대 1) 등 ‘콘텐츠’나 ‘미디어’ 키워드의 모집단위 경쟁률이 높았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노출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경쟁률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없다”며 “경쟁률이 높고 해서 평소 가진 관심이나 본인의 적성과 관련 없는 모집단위에 학종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은 전략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과공부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진로 정보를 탐색한다면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게 대입에서 기회의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10일 송도부지 1단계 개발공사(외대국제교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 송도에 ‘외대국제교육센터’ 준공

지하1층~지상 3층 강의동 신축
풋살경기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10일 송도부지 1단계 개발공사(외대국제교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중철 이사장, 김인철 총장, 이정미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철 총장은 “송도 국제도시는 첨단산업, 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점지역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의공학 바이오 기관과 인접해 있다”며 “이는 한국외대 BME학과와 산관

학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지이며, 글로벌 역량 강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도부지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되며 이번에 1단계로 준공된 외대국제교육센터는 전체 대지면적의 약 20%인 8374㎡(2538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80㎡(812평) 규모의 다목적 강의동으로 신축됐다. 강의실 15실을 비롯해 행정실, 전시실, 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친환경 인조잔디로 이루어진 풋살경기장과 주차장이 설치됐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개강 2주 연기… 감염증 방지 총력

학사 운영 차질 없도록 학기 중 보강

삼육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 2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강일은 기존 3월 2일에서 16일로 늦춰졌다.

이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앞선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들에 4

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삼육대는 개강 연기로 인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기 중 보강 등을 통해 총 15주의 수업 시수를 맞추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기간제교사에 꺼리는 업무 넘기는 행위 금지”

서울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복귀시 호봉 인정제한 완화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정규직 교원들이 꺼리는 힘든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복귀할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학교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 절반 정도인 25명이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

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보직교사뿐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학교에 다시 한번 전했다.

특히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도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에게도 허용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 다.

또 기간제교사는 기존 허용됐던 경조

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 등 특별휴가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도 해제된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과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 임금을 2중으로 받는 일을 막기 위해 2000년 도입됐으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때에도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씽크빅 ‘AI수학’ 회원수 7만명·매출 500억 돌파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학습 제공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AI수학’의 회원 수가 7만 명을 돌파하고, AI를 적용한 수학 단일과목으로 연 매출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웅진씽크빅 AI수학은 실시간 인공지능 학습분석솔루션과 누적된 500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개인의 체감 난이도, 오답률 등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알고 있는 개념은 반복하지 않고, 실력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정과 문항을 짚어줘 학습 효율을



어린이가 웅진씽크빅 AI수학을 통해 학습목표와 난이도를 확인하고 있다. /웅진씽크빅

높인 것이 장점이다.

웅진씽크빅의 AI학습서비스는 카이스트 김민기 교수팀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김교수팀 연구결과 웅진씽크빅 AI학습코칭을 경험한 학생들

은 평균적으로 동일한 학습시간 동안 16문제를 더 풀고, 10.5%포인트 향상된 정답률을 보였다. 적절한 코칭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24문제 가량의 학습량과 15.7%포인트 정답률 향상 결과가 나타났다.

AI학습 서비스는 스탠포드대학 박사 출신으로 구성된 실리콘밸리 에듀테크 기업 ‘키드앤티브’와 국내 에듀테크 전문인력들이 공동 개발했다. 웅진씽크빅은 AI수학 외에도, AI독서케어, 웅진스마트울 등 다양한 AI학습 서비스를 선보이며 스마트 홈러닝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용수 기자